

포스코-삼성, 신개념 풍력타워 개발

고강도 강재 적용에 플랜지형 대체 ... 이르면 2011년 1/4분기 가동

포스코가 삼성중공업과 고강도 강재를 적용한 풍력타워와 신개념 풍력타워를 공동 개발기로 했다.

양사는 기존의 355MPa급 강재를 대신해 460MPa급의 고강도강을 적용한 풍력타워와 기존 플랜지(Flange)형 풍력타워를 대체할 수 있는 신개념 풍력타워를 개발기로 하고 최근 협약식을 가졌다.

2010년 9월까지 고강도강 풍력타워 기본설계를 마치고 연말까지 국제인증기관의 인증을 취득해 2011년 상반기에 시범 가동할 계획이다.

신개념 풍력타워는 2011년 1/4분기 안에 상세설계를 완료한 후 국제인증 취득할 방침이다.

풍력타워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강도 355MPa급 일반 구조용강은 중국 철강기업의 후판이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.

포스코는 이에 앞서 4월15일 대우조선해양과 풍력타워 개발 공동연구 기술협약을 맺는 등 신·재생 에너지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0/05/07>